“어려운 시기, 용기 갖고 백신 맞길”

달라이라마, 3월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김민재 객원기자

티베트의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공개적으로 받아 화제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인들과 세계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백신을 맞으라고 격려했다.

지난 3월 6일 ‘뉴욕 타임즈’, ‘힌두스탄 타임즈’ 등의 주요 외신들은 달라이라마의 백신 접종을 특별 보도했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망명정부와 자신의 관저가 있는 다람살라 병원의 코로나 백신센터에서 백신접종을 받았다. 접종 후 별다른 부작용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달라이라마는 접종을 받은 그 자리에서 백신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촬영, 다음날 유튜브와 공식 사무국을 통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달라이라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백신 접종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백신을 맞길 바란다”며 백신 접종을 격려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두 달 전쯤 인도 정부와 캉그라 지구 최고 의료책임자에게 티베트 망명정부가 달라이라마와 망명정부 인사, 그리고 인도 티베트인 망명공동체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당시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었다”며 “이는 백신 수급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두 달 만에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었다. 인도 보건 당국과의 회의를 통해 달라이라마께서 관저 안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으나, 다른 일반 시민처럼 직접 병원으로 가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존자의 뜻에 따라 접종 계획을 바꿨다”고 전했다.

달라이라마가 백신을 접종 받은 것은, 최근 퍼지고 있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이라마는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응원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영상 메시지에서 “많은 환자들이 백신을 맞았고, 나 역시도 방금 백신을 맞았다. 이 백신은 이 어려운 상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을 받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

다람살라가 소재한 히마찰프라데시주 캉그라 지구의 의료 최고책임자 구르다르샨 굽타 박사는 “캉그라 지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1월 16일부터 진행 중이었다. 인도정부의 지침에 따라 의료 최전선에 있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을 우선으로 접종을 시작했다”며 “2차 접종은 2월 13일부터 시행했으며 6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방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달라이라마는 인도에서 위탁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월 21일 델리 AIMS에서 바이오기업 바랏 바이오테크놀로지(Barat Biethics)와 인도 의료연구회가 개발한 인도 토종 코로나 19 백신인 코박신(Covaxin)을 1회 접종했다.

현재 인도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00만명이 넘었으며 지금까지 15만 8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LA서 또 증오범죄 훼불 사건 발생

日 사찰, 신원 불명 백인 남성에 의한 방화 등 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의 한 일본불교 사찰이 증오범죄 테러로 훼손됐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door)의 3월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LA 시내 리틀도쿄 내에 위치한 일본불교 사원 히가시 혼간지(Higashi Honganji)가 지난달 26일 훼불 피해를 입었다.

사원 내 CCTV에 포착된 신원 불명의 백인 남성(30대 초반 추정)은 사원의 울타리를 뛰어 넘어 출입구 조명을 부수고 일본의 전통 등불 등 사찰 구조물에 방화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사원의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지기까지 했다. 당시 보안 경비인력은 부재중이었고, 보안 알람 시스템은 꺼져 있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사원 관계자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노리아키 이토(Noriaki Ito · 72) 주지 스님은 “테러 당한 사원의 상태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큰 실망과 슬픔을 느꼈다”며 “동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표적이 된 것 같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LA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훼손된 일본의 전통 등불은 1976년 사찰에 기증된 것이다. 방화 당시 경내에 머물던 스님이 달려가 즉각 소화기로 불을 진압,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용의자 남성은 현장에 스님이 나타나자 달아났다. 범행 당시 검은색 야구모자와 주황색 티셔츠,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신원 불명 남성에 의해 훼손된 사찰 구조물. 사진출처=Nippon 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히가시 혼간지는 일본 정토진종에 근거한 사찰로, LA 내에서 가장 오래된 일본 불교 사원이다. 현지 언론 ‘LA타임즈’에 따르면, LA 경찰 당국은 지난해 3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지역사회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등에 대해 발생한 증오범죄 사건이 24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35%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LA 인근 산타아나 지역의 베트남 사찰이 증오범죄로 인한 훼불 피해를 입었다. 박정현 기자

싱가폴 삼학수행 웹 컨퍼런스 진행

14개국서 참가해…달라이라마 기조연설

싱가포르 티베트 불교센터(TBC)가 3월 5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으로 ‘팔리-산스크리트어 불교전통의 삼학수행’이라는 주제로 국제불교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양일에 걸쳐 진행된 이 컨퍼런스엔 전세계의 남방불교와 대승불교 전통의 14개국, 35여명의 연사와 토론자가 발표와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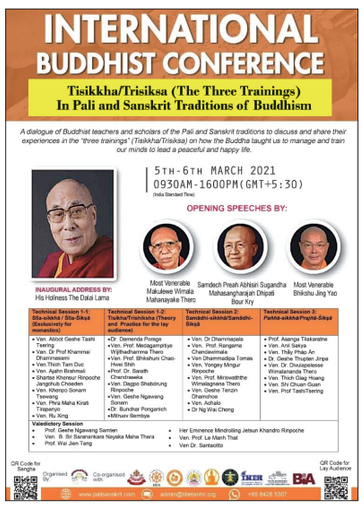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한 TBC의 위니 사무국장은 개회사에서 “전세계 약 5억명의 불교신자들이 의지하는 것은 바로 불교철학이며 그 기본은 자비와 연민이다. 그러나 각 세계로 전파된 불교는 국가와 인종, 문화에 따라 불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적으로 테라와다로 대표되는 팔리어 전통과, 대승불교로 대표되는 산스크리트 전통으로 나뉘지만 이들의 기본 수행은 바로 계정혜의 삼학”이라고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태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의 테라와다 불교협회들과 대만, 베트남, 미국, 러시아의 대승불교 단체 등 총 12개 불교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한국 티베트 하우스(랍숨섀둡링)가 공동운영위로 참가했다. 테라와다 측에선 캄보디아와 미얀마 역시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현지 상황상 불참한 것으로 전했다.

TBC 측은 “팔리어 전통과 산스크리트어 전통 불교들은 오랫동안 서로의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국제불교협회 등을 조직하고 의논해왔다. 코로나19라는 상황과 인터넷 통신의 발전이 웹 컨퍼런스를 가능하게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오랫동안 두 전통의 상호발전을 강조해온 달라이라마 존자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태국의 마하야노 스님을 사회자로, 대만불교협회 이사장인 징야오 스님, 국제불교도연맹 인도사무총장인 담마피야 스님, 스리랑카의 라만나 마하니까야 종단의 마쿨라위 위말라 마하나야케 종정 스님 등이 각각 개회사를 전했다.



TBC 삼학수행 웹컨퍼런스 포스터.

징야오 스님은 “팔리전통과 산스크리트 전통의 삼학수행은 모두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며 이 수행들은 모두 사성제와 팔정도의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담마피야 스님은 “다른 언어, 다른 전통으로 불교가 퍼졌지만 공통된 뿌리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같은 계정혜의 삼학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남방과 북방의 공통성을 말했다.

이어서 마쿨라위 위말라 마하나야케 스님은 “계정혜의 삼학은 모두 단계적으로 이어짐을 관찰해야한다”며 깨달음을 위한 길이 삼학이라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기조강연에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성은 논리에 있다.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에 근거하는 불교는 과학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지금껏 볼 수 없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며 삼학을 수행하는데 있어 논리와 인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팔리어 전통과 산스크리트어 전통에서 공통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계율이며, 이를 통해 더 자비롭고 지혜로워 져야한다”고 연설했다.

컨퍼런스는 양일에 걸쳐 각각 계학, 정학, 혜학으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계학에선 출가자들을 위한 율장 세션과 재가자들을 위한 계학 세션이 각각 별도로 진행됐다. 특히 혜학 세션의 토론에서는 ‘비아(非我)와 무아(無我)’ 등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 사찰, 성소수자 위한 혼례식 마련

‘평등’ 원칙 계승 취지

일본의 한 사찰이 성소수자(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퀴어 등)들을 위한 전통 혼례식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일본에서 동성 간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평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찰 내 혼례를 주선한 것이다.

3월 9일 ‘Timeou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사이 요우지(Saimyouji) 사찰은 혼례를 올리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전통 불교 혼례식을 진행한다. 일본에서 동성 간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신, 일부 지자체별로 인정된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혼례는 타종으로 시작돼 부부와 하객들의 본당 입장, 스님의 발원 기도 등 순으로 진행된다. 부부는 불상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기에 앞서 스님으로부터 성수와 구슬을 받고, 마지막으로 부처님 전을 향해 절을 올리고 향을 피운다.

750년 이상 된 사이 요우지 사찰은 차별을 지양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다는 취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사이 요우지(Saimyouji) 사찰에서 전통 혼례를 올린 성소수자 커플. 사진출처=Timeout

해당 매체는 “묘칸 센다(Myokan Senda) 주지 스님은 사원 밖에서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사회 활동을 펼친다”며 “LGBTQ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LGBTQ 행사에 참여해 무지개색 전통 화과자를 나눠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찰이 오랜시간 이러한 노력을 해온 덕분에 지역 내 성소수자들에게 안식처와 같은 곳으로 여겨진다”고도 덧붙였다. 박정현 기자

“명궁(名弓)이 쏜 화살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돌멩이 하나로 꿩 두 마리 잡았다(水地比)
천문동(天門冬)과 통쾌희(痛快喜)의 합동작전 개시!”

천문동, 회화실, 강황, 황금, 도라지 外 3종 성분 및 효능
보스웰리아, 두충, 우슬, 홍화, 유근피 外 2종 인터넷 참조

기침, 가래, 비염, 호흡기, 기관지, 천식, 폐질환
무릎, 팔다리, 허리, 관절통, 뒷목, 연골 보호, 소염, 진통

※부디 99세까지는 기침, 가래, 비염, 기관지, 호흡기, 폐 질환, 흡연, 바이러스(천문동)에 맡기시고 무릎, 팔다리, 손목, 뒷목, 허리관절통과 연골 소염진통은(통쾌희)가 마무리할 것이니 부디 건강히 지내십시오.
※제조과정 : 보스웰리아, 두충, 우슬, 홍화씨 등을 깨끗이 정제한 후 대형 열 탱크에 넣고 가열하여 진액(一名 엑기스)을 추출한 후 미리 법제한 국산 토종 천문동과 회화 열매 분말과 합제 한 후 쇳가루와 이물질을 제거 한 후 녹두대 丸으로 제조되었다.
※워낙 고가의 재료와 제조과정이 까다로워 판매 보급가가 부담이되실까 염려되어 일단 무료체험 기회를 드릴 것이니 희망자는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선착순 200명에게만 배송해 드립니다. 배송비 4,000원만 부담하십시오! 단 무료로 드시는 대신 10일 동안은 꾸준히 드시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 후에 선택과 판단은 그때 가서 하십시오.영양제나 보약처럼 장기복용이 아니라, 짧고 굵게 20日~30日이면 놀라운 경험을 느낄 수 있으며 내 몸이 답을 줄 것입니다.
진솔한 마음과 정신의 혼을 담아 지극히 효심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개발자: 林大業)
※주소 : 문자 주십시오. 010-7159-5737/010-8181-2699 농협계좌 : 355-0068-7416-53 (호산헬시코리아, 임대업)

| 무료 체험용 |


50g 10일분

호산 헬시코리아
www.hosanhealty.com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할 의무다!
왜? 자식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가? (비지니스, 효도선물로는 최고의 제품)